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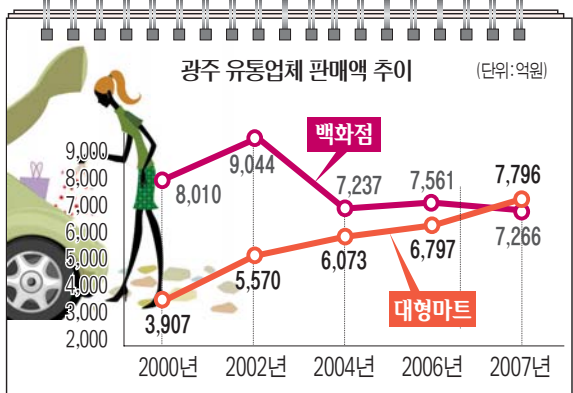
지역민 '소비 트렌드' 빠른 속도로 변화

백화점 지고 대형마트 뜬다

통계청, 2000년 이후 구매 패턴 비교

광주지역 백화점 매출 7년새 9% 감소

전남 대형마트 판매액 6,300억 71% ↑



지난 2000년 이후 광주·전남의 백화점 매출이 줄어든 반면 대형할인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급증하는 등 소비 트렌드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이 잇따르면서 최근 7년새 매출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백화점 3곳의 매출은 7천2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년 전인 2000년(8천10억원)에 비해 9.3%(744억원) 감소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할인마트 등 대형소매점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는 같은 기간 대형마트 매출이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광주지역 대형마트 17곳의 판매액은 7천796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매출 규모는 2000년(3천907억원)보다 99.5%(3천889억원)나 늘어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백화점의 매출액을 넘어섰다.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추세는 전남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남지역 대형마트 14곳의 판매액은 6천296억

원으로, 2000년(777억원)에 비해 710.3%나 늘었다.

전남의 마트 매출 급증은 2003년 이후 순천과 여수 등을 중심으로 유통업체들의 신규 입점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은 2005년과 2006년 순천과 여수 등에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6곳이 들어설 만큼 유통업체들의 신규 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해 전국의 대형마트 판매액은 28조9천454억원으로, 2000년(11조1천917억원)보다 158.6%(17조7천537억원)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백화점의 판매액 증가율(24.7%·3조6천988억원)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대형마트 매출이 141%(4조1천274억원)나 늘어난 반면 백화점은 13.5%(1천718억원) 감소했다.

인천도 대형마트 매출이 150.3%(1조214억원) 급증한 사이 백화점은 17%(1천537억원)나 급감하는 등 수도권 유통 트렌드 변화 추세가 뚜렷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창업활동 위축

3분기 신설 법인수 697개 ... 전분기보다 15% ↓

2곳 중 1곳 자본금 5천만원 미만 '생계형 창업'

불황과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3·4분기 광주·전남의 창업활동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새로 문을 연 법인 2곳 중 1곳 이상이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생계형 창업' 창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3·4분기 광주·전남의 신설법인 수는 697개로, 2·4분기(825개)에 비해 15.5%(128개) 줄었다.

광주·전남의 창업활동이 위축된

것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와 지방 건설경기 침체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3·4분기 창업 법인 수가 297개로, 지난해 2006년 3·4분기(279개)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창업활동이 크게 둔화됐다. 3·4분기 현재 광주·전남의 건설업 창업은 141개로, 전분기(177개)보다 20.3%(36개)가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3·4분기 창업이 330개로, 전분기(404개)에 비해 18.3%(74개) 줄었다. 이는 2006년 2·4분기(293개) 이후 최저치로,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창업 기피 현상이 뚜렷했다.

광주·전남의 창업시장 위축은 신설법인의 자본금 규모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광주·전남은 3·4분기에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법인 설립이 전체 창업의 54.4%(379개)에 달했다. 지역내 신설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규모의 생계형 창업인 셈이다.

또 2억5천만원 미만도 전체의 88.8%(619개)를 차지하는 등 법인 규모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우수 중소기업 박람회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GP Show (Korea Good Product Show) 2008'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려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서남권 노사민정 대표 '한자리에' 노사화합·산업평화 공동 결의

전남 서남권의 노사민정 대표들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불안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서남권 일자리 창출 연대회의'는 29일 오전 영암에서 전남도와 목포시 등 서남권 9개 시군의 노사민정 대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큰 잔치'를 개최하고 '노사민정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대화와 타협, 노사 안정으로 서남권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투자와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경제발전지역으로 탈바꿈시키자"고 강조했다. 또 "서남권의 번영과 희망을 위해 노사 관계 안정과 기업 발전에 재정적 지원과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 같은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 모두가 하나가 돼 적극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서남권 일자리 창출 연대회의'는 전남 서남권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위해 이 지역 노사와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해 결성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목포지역지부'와 관내 최대 사업장인 민주노총 소속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도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영암=박진희기자 lucky@

해남 옥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한눈에 반한 쌀'이 2008년 최우수 농협RPC 브랜드쌀로 선정됐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70개 농협RPC를 대상으로 브랜드쌀의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눈에 반한 쌀'이 1위를 차지했고, 경기 신길농협이 '김포금쌀', 경기 파주 신교하농협이 '교하쌀', 강원 도암농협이 '봉황쌀', 경기 평택 송탄농협이 '슈퍼오미'가 2~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상위 30위 브랜드 중 경기지역이 18개로 60%를 차지했고, 전남·충북은 각각 3개, 전북·인천은 각각 2개, 강원·충남은 각각 1개였다. 농협은 농협RPC의 고품질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각각 품질평가를 실시한 뒤 상위 30위까지의 브랜드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태기자 jitee@kwangju.co.kr

편평비 낮은 타이어 금호서 최초로 개발 '엑스타 15시리즈' 성공

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는 세계 최초로 편평비가 가장 낮은 '엑스타 15시리즈' <사진>타이어 개발에 성공, 오는 11월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의 자동차 부품전시회인 시마쇼(SEMA Show)에 출품한다고 밝혔다.

편평비(시리즈)란 타이어 폭과 측면 높이의 비율로, 편평비가 낮을수록 핸들링이 민첩해져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6년에도 타이어 기술로는 한계라고 여겨졌던 20시리즈 타이어 개발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바 있다. /이재태기자 jitee@

전남에 수도권 6개 기업 이전

조정밀 기계부품 공장·자동차 트레일러 생산 공장 등

장성과 담양에 조정밀기계 부품공장, 자동차 트레일러 생산 공장, 식품가공공장 등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한다.

전남도는 29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과 이정섭 담양군수, 이청 장성군수, 박석기(주)대성테크 노 대표이사, 김정설(주)한국그린피아 회장, 박승용(주)세존에프앤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9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 화성에 있는 대성테크는 장성군 장성읍 일원 4천㎡에 113억원을 투자해 조정밀 부품 가공과 장치산업 등 정밀 기계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 소재를 생산한다.

자동차 트레일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그린피아는 담양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내 부지 9천㎡에 52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트레일러와 이동식 화장실 제조 공장을 짓는다.

세존에프앤비는 경기 화성에 있는 기업으로 담양군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4천㎡의 부지에 25억원을 투자해 누룽지 등 전지방역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공장을 건립한다.

박준영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결심한 기업들에 감사를 표한다"며 "투자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도권 기업 유치 건수가 매년 1~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6개 기업을 유치했고, 연말까지 1~2개 기업이 더 투자를 약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ae@kwangju.co.kr

황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원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특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2007)에 의해 고졸사범에 필기부 차감 지원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90% 환급

4명당 산학수 조기매출 감면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 236-2469

저탄소 시대 ~ 저탄소 생활 30~40만 원 ~

저탄소 순간 전기 보일러 온수기

※산학, 안주, 금성, 가성, 해성

기름값 대비 60~80% 절감효과

모델명	출력	연료	가격
ED00-150W	150W	액화석유기	1,200,000원
ED00-200W	200W	액화석유기	1,500,000원
ED00-250W	250W	액화석유기	1,800,000원
ED00-300W	300W	액화석유기	2,100,000원
ED00-350W	350W	액화석유기	2,400,000원
ED00-400W	400W	액화석유기	2,700,000원
ED00-450W	450W	액화석유기	3,000,000원
ED00-500W	500W	액화석유기	3,300,000원
ED00-550W	550W	액화석유기	3,600,000원
ED00-600W	600W	액화석유기	3,900,000원
ED00-650W	650W	액화석유기	4,200,000원
ED00-700W	700W	액화석유기	4,500,000원
ED00-750W	750W	액화석유기	4,800,000원
ED00-800W	800W	액화석유기	5,100,000원
ED00-850W	850W	액화석유기	5,400,000원
ED00-900W	900W	액화석유기	5,700,000원
ED00-950W	950W	액화석유기	6,000,000원
ED00-1000W	1000W	액화석유기	6,300,000원

무엇보다도... (장점 설명)

유망성업번호 060-909-0088

구입번호 010-9469-9373